

NCC, 나프타가격 강세 "고전"

96년8월 톤당 191달러 ... 에틸렌 · 프로필렌은 하락세 지속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나프타 가격 급등으로 원가압박에 시달리는 등 경영악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나프타를 제조해 생산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 가격마저 최근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유도품인 PE, PP가격도 중국 수출부진 등 전반적인 수요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NCC기업들은 가동률 하락 등 감산까지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본은 채산성 악화로 에틸렌 감산을 실시중이다.

나프타 가격추이를 보면, 96년8월 현재 국내가격은 톤당 191.950달러를 기록, 95년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5월 198.306달러 보다 6.356달러 하락했을 뿐 96년초 172달러, 95년 11~12월 162~164달러에 비해 30달러이상 높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나프타가격 변동추이

구 분	조정 전		조정 후		조정률 (%)	적용환율 (₩/\$)
	(W/C)	(\$/MT)	(W/C)	(\$/MT)		
1995. 6.1	101.80	189.159	101.59	188.766	▽0.21	761.49
7.1	101.59	188.868	100.48	186.807	▽1.09	761.09
8.1	100.48	187.779	93.17	174.113	▽7.28	757.14
9.1	93.17	171.674	91.03	167.733	▽2.30	757.92
10.1	91.03	166.784	91.80	168.185	0.84	772.28
11.1	91.80	169.240	88.23	162.658	▽3.89	767.51
12.1	88.23	162.248	89.55	164.672	1.49	769.45
1996. 1.1	89.55	164.291	94.10	172.644	5.08	771.25
2.1	94.10	169.274	97.72	175.783	3.84	786.58
3.1	97.72	177.207	92.76	168.219	▽5.07	780.27
4.1	92.76	167.991	100.86	182.659	8.73	781.30
5.1	100.86	182.873	109.37	198.306	8.44	780.39
6.1	109.37	198.392	105.92	192.137	▽3.15	780.04
7.1	105.92	194.46	104.46	185.288	▽1.38	797.77
8.1	104.46		110.27	191.950	5.56	812.88

주) ① 환율은매매기준율, 환산계수는1MT= 8.9Bbl

② 1Bbl=158.984ℓ 적용

③ 전월C & F Japan + 부대비1.5% 가격으로기금등기타비용은불포함.

나프타 가격이 95년말 가격에 비해 30달러이상 높게 거래되고 있는것은 96년3월 UN-이라크간 석유판매회담 진행으로 안정세를 보인 이후 4월부터 다시 한파 영향과 UN-이라크간 회담 전망 불투명, 미국-이라크전 재개, 미국 내 원유재고량의 최저수준 기록 등 여러 악재가 발생, 원유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5월에는 미국의 석유재고 부족과 Driving Season의 휘발유 수요증가 등으로 톤당 198달러에 이르는 등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UN-이라크간의 석유판매 회담이 5월20일 타결됨에 따라 나프타 가격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이라크 금수조치가 완전 해제되지 않고, 미국-이라크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내 및 동북아시아와 달리

미국, 유럽 등은 석유화학이 호황을 보이고 있어 나프타 가격이 좀처럼 하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NCC기업들은 나프타 가격이 톤당 190달러 수준일 때 에틸렌, 프로필렌 가격도 이보다 250달러 이상 높은 450~500달러에 이르러야만 손익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 에틸렌 수출가격은 290달러, 프로필렌은 370달러에 머무르고 있어 극심한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G석유화학을 비롯 삼성중합화학, 현대석유화학, 한화중합화학 등이 96년 상반기 정기보수기간동안 10만~20만톤씩 Debottlenecking을 통해 에틸렌 증설을 완료했고 유공, 대림산업 등도 10월 정기보수기간에 맞춰 증설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져, 공급과잉에 따른 에틸렌 가격의 하락과 나프타 가격 폭등으로 인해 석유화학기업들의 채산성 악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화학저널 1996/10/7>